

가장의 실직에 따른 가정생활 변화

김용숙[†], 서혜경*, 이영숙**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군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Family Life Style Changes According to the Householder's Job Status

Yong-Sook Kim[†], Hye-Kyung Suh*, Yeong-Sug Yi**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ju Univ.**
*Dept. of Home Management, Kunsan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householder's job status on the family life style. Data was collected from 475 parents in Chonbuk province by using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June 10 to 30, 1998. Frequencies, percentages, and averages were calculat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follow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families who suffered householders' job loss were 1/4 of the respondents and over 4/5 of the families felt economic stresses. 1/3 of the respondents had debts and 1/5 had not any savings. Most of the families were in good or normal marriage relationships, experienced economic crises, and had sparing habit.
2. In out-of-job families, couple cohesion, couple satisfaction, and total marriage relationships were lower than in-job families. Also, out-of-job families spared more in buying and using clothes and foods, total clothes living and total food living.
3. In out-of-job families, the economic pressures on marriage relationships, clothes living, and food living were stronger than in-job families.
4. Family resources such as savings, ordinary marriage relationships, and sparing habit effected on the marriage relationships, clothes living, and food living in out-of-job families and in-job families. (*Korean J Human Ecology 1(2):12-22. 1998*)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
664-14 Duckjin-dong, Duckjin-gu, Chonju 561-756, Korea
Tel : 0652-270-3847, Fax : 0652-270-3799
E-mail : kys3847@moak.chonbuk.ac.kr

KEY WORDS : out-of-job family, in-job family, marriage relationships, clothes living, food living.

I. 서 론

1997년 말 이후 'IMF 시대'라는 신조어를 탄생하게 했던 우리 사회의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가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변화는 계속된 원화 가치의 폭락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의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가 각 가정에 주는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된 것 이상이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 대한 기사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가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가정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책임자를 남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따라서 가장의 실직은 가정생활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집마련이나 진학을 연기하고 외식비나 의복 구입비를 줄이는 소비생활 유형이 바뀌는 직접적인 변화(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외에도 부부간의 폭력이나 이혼 의뢰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조선일보 1998; 중앙일보 1998)은 경제적 위기가 가족의 경제적인 면 이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즉, 가장의 실직은 가정생활의 물질적인 측면 못지 않게 가족의 심리적 측면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장의 실직이 가정에 주는 의미와 영향은 각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다. 즉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족마다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의 실직이 가정생활에 주는 영향은 가족이 실직에 부여하는 이러한 의미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압력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위기라 할지라도 가족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능력은 바로 가족이 지닌 자원에 의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자원이 충분한 가정에서는 경제적 위기가 주는 어려움을 덜 느낄 수도 있으며 또 자원을 잘 활용하여 위기를 보다 쉽게 극복할 수도 있다. 특히 가족 중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부가 지닌 자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은 지난 30여년간 고속성장을 해오던 중 갑작스럽게 닥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를 맞아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하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보고들은 경제적 위기가 주는 물질적인 면의 변화만 중시했을 뿐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장의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각 가정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면에 끼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그들이 가진 자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의 실직은 가정생활의 어느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장의 실직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가장의 실직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있는 가정의 자원은 무엇인가?

II. 문헌 고찰

1. 가장의 실직과 경제적 압력

가정 경제의 최종 목적은 경제적인 여유와 안정을 누리는데 있으며 이중 우선 과제는 경제적 안정이나(이기춘 1991) 가장의 실직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여 부인이 가계의 일부분을 담당한다해도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남편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의 실직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통계청의 1998년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IMF 관리체제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이 지난 6개월간 13.7% 감소하였다는 보고(조선일보 1998)나, IMF 관리체제 이후의 소비행태가 생활비 줄이기 등 절약형태로 바뀌고있다는 보고(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등은 가장의 실직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가장의 실직과 그에 따른 소득의 감소와 정비례하여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의 실직이나 소득의 감소와 같은 객관적인 변화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과 관계가 크다. 실제로 최근에는 가장이 실직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가정에서도 지나치게 소비를 줄여 국가 전체로서는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객관적인 경제적 변화가 없어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소비유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객관적인 변화보다 주관적인 평가가 더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의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파악하여 이를 경제적 압력이라고 정의하였다.

2. 부부관계

가장의 실직이 가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소한의 소득수준이 가족의 안정과 가족원의 응집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실업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결혼의 안정성, 적응도, 부부만족도, 가족원의 응집력, 부부간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관계의 조화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Voydanoff 등 1988; Larson 1984). 즉 실업은 가족관계에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극단적으로 남편의 실업은 이혼이나 별거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Sawhill 등 1975).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가장의 실업이 전반적인 결혼생활의 적응이나 가족생활 만족도와 관련성보다는 결혼생활의 특별한 면에 미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Larson(1984)은 가장의 실직이 가족간의 대화를 적게 하고 가족관계의 조화나 일치도를 떨어뜨린다고 보고하였다. 현대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관계는 부부관계이므로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부양자 역할을 담당했던 가장이 실직했을 때 부부갈등이 증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Atkinson 등

(1986)은 가장이 실직하면 배우자의 지지가 낮아지고 서로 다투는 횟수가 많아지며 가족의 응집력이 낮아지는 등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가장의 실직율이 급증한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이 실직하면 가족간에 상호작용을 회피하게 되면서 가족갈등이 표면화된다는 보고도 있다(김은미·이선이 1998).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1998년 1/4분기 상담 결과 이혼상담이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하였다는 보고(중앙일보 1998)도 가장의 실직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장의 실직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가족마다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가장의 실직 전부터 가족이 가진 자원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의 실직이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미 실직 전에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Wilhelm와 Ridley(1988)의 실직을 다룰 수 있는 관리능력이 있으면 경제적 어려움은 감소한다고 하는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비계획이나 저축을 하는 것은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가 주는 가족원의 긴장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실직하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좋았던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 적게 나타났다(Liker & Elder 1983). 따라서 경제적 위기가 부부관계에 주는 영향은 경제적인 변화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가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의 소유 여부에 있는 것이다.

3. 의생활

스커트의 길이와 경제적 호황 또는 불황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경제적 불황기의 패션 변화 속도가 둔감해지는 점이다. 즉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인간의 소비 욕구는 감퇴하며 이에 따라 패션에 대한 소비는 지체되고 새로운 패션 스타일의 소개와 확산 속도가 느려진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침체되어 발달한 미니스커트보다는 긴 미디나 맥시 스커트 길이에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침체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대한 역사적 현상은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었던 1930년대와 1950년대 그리고 제 1차 석유파동기인 1970년대에 나타났었다. 그리고 경제적 호황을 누렸던 1920년대와 1960년대에 스커트 길이가 짧았었다. 즉 경제적 호황으로 소비의 욕구는 증대되며 새로운 패션 스타일에 대한 욕망이 증대되며 심리적으로 발달하고 활기넘치는 짧은 스커트 길이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응하는 실용이론에 의하면 경기가 불황이면 천의 값이 내려가고 이에 따라 스커트 길이가 길어지며 천을 많이 소비하므로 다시 경기가 회복된다고 본다(Greenwood & Murphy 1978). 그러나 경제적 불황기인 현재 미니 스커트, 미디 스커트, 맥시 스커트, 팬츠, 그리고 스커트에 팬츠를 덧입는 레이어드 룩이 흔해지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하여 김민자(1995)는 패션은 더 이상 경제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경제 불황이후 가정에서의 생활비중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여성의 경우 식료품비와 의류비였으며 옷을 수선하는 업소가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김기욱 등 1998). 그러나 교복을 후배에게 물려주거나 신용카드 수를 줄이는 행동은 실천도가 낮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삼성패션연구소(1998)에서 발표한 남성복 구매행태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통화기금 체제하

에서 소비자의 의복 구매 심리는 그 이전보다 저조하여 격감 추세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옷을 사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며 세일 기간을 활용하고 구입 가격대는 중저가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대기업 종합매장을 이용하는 비율보다 할인점에 더 많이 가고 있으며 20대들의 구매력은 불황에 관계없이 높았으나 30대 이상의 계층들은 타 계층보다 불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구매력이 낮았다. 그러므로 남성복업계에서는 상대적 구매력이 높은 신세대 계층을 위한 중저가 캐주얼웨어를 기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망하였다.

이상과 같이 건축 경제 상황 속에서 의류 구입비는 축소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의생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의류생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호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중저가의 의류 상품을 기획할 필요가 크다.

4. 식생활

지난 수 십년동안 진행된 사회 발전은 가계 소득의 상승, 주부의 취업 기회 확대, 가족 구성의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식품산업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식생활도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를 하게 되었다. 식생활은 인간의 생활현상 중 가장 기본적인데 중요한 요소로 생리적 욕구 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인 욕구까지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재화의 조합을 선택하므로 식생활은 식료품에 대한 구매, 소비, 폐기로 파악할 수 있다(현기순 1998).

우리나라 가정의 총소비 지출에 대한 식생활비의 백분율인 엔젤계수를 살펴보면, 1965년에

53.7% 1985년에 37.55%, 1995년에 28.8%, 1996년에 28.5%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엔젤계수가 감소하였다. 식료품비에서 주식과 부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7년에서 96년까지 각각 14.1%와 9.4%가 감소한 반면 기호식품은 0.4%, 외식은 21.5% 증가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외식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87년부터 96년까지 10년간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은 3.5배 증가하였고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3%에서 28.5%로 6.8% 감소하였으며 곡류구입에 지출한 비율이 9.1%에서 3.3%로 감소한 반면 외식비가 4.3%에서 9.6배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주식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족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부식비는 소득과 많은 관계를 갖게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부식비중에 값이 비싼 동물성 단백질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해 실직 가정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가정생활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결과(최현자 1998)에 의하면 IMF체제 이전과 비교하여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큰 비용이 식료품비(51.4%)도 나타났으며, 외식비를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4.3%였고,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식료품비 지출을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1.3%가 생활비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잡비 줄이기(57.7%) 다음으로 외식비(45.8%)와 식료품비(38.5%)를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실직에 따라 식생활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전라북도내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1998년 6월 10일부터 30일 사이에 600부를 배부한 후 505부가 회수되었고 통계분석에 사용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응답지 30부를 제외하고 47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대상자 변인과 가정생활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 변인은 작년 12월 이후 가장의 취업 상태 변화와 경제적 압력, 그리고 가정 자원으로 평소의 부부관계, 경제적 위기 경험, 가족의 절약습관, 빚, 저축액에 관한 문항 등 총 7문항을 포함하였다.

가정생활 변인은 부부관계, 의생활, 식생활 등의 3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Spanier(1976)의 DAS(Dyadic Adjustment Scale)을 우리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응집도를 측정하는 문항 4개(Cronbach's $\alpha = .86$), 부부합치도를 측정하는 문항 5개(Cronbach's $\alpha = .87$), 부부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6개(Cronbach's $\alpha = .60$)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생활에 관한 문항은 선행 연구(황덕순, 1994; 삼성패션연구소, 1998;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선정한 의복의 구입에 관한 문항 5개(Cronbach's $\alpha = .75$), 의복의 사용에 관한 문항 5개(Cronbach's $\alpha = .77$), 의복의 폐기에 관한 문항 4개(Cronbach's $\alpha = .69$)

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에 관한 문항은 선행 연구(황덕순, 1994; 최현자, 1998;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선정한 식품 구입에 관한 문항 4개(Cronbach's $\alpha = .85$), 식품 사용에 관한 문항 5개(Cronbach's $\alpha = .76$), 식품 폐기에 관한 문항 3개(Cronbach's $\alpha = .61$)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생활에 관한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긍정적이며 의생활과 식생활에서는 절약이 많이 한다는 의미이다.

3. 자료분석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백분율, 빈도, 평균을 구하였으며 실직가정과 비실직가정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단순상관분석과 다단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자 가정의 작년 12월 이후 가장의 취업상태 변화와 가정의 자원은 <표1>과 같다.

대상자 가정의 75.8%가 가장의 취업상태 변화가 없었으나 24.2%의 가정에서 가장이 실직하였으며 대다수의 가정에서 경제적 압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김년희와 안승철(1998)의 보고와 한국소비자보호원(1998)에서의 보고와 비슷한 경향이였다. 가정의 자원으로 빚과 저축을 살펴보면 빚이 없는 가정의 전체 대상자의 36.4%이었고 빚이 있는 가정의 빚 평균액은 14,093,222원이었다. 저축이 전혀 없는

가정이 18.1%이었고 저축이 있는 가정의 저축액의 평균은 19,675,620원이었다. 평소의 부부관계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좋다” 또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과거 경제적 위기 경험은 60.4%의 가정에서 1-2회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대다수의 가족들이 절약하며 생활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 변인		빈도	백분율
가장의 취업	실직	111	24.2
상태 변화	비실직	350	75.8
경제적 압력	아주 강하게 느낀다	148	31.4
	조금 강하게 느낀다	247	52.3
	그저 그렇다	55	11.6
	느끼지 않는다	16	3.4
	전혀 느끼지 않는다	6	1.3
빚	전혀 없다	173	36.4
	약간-2000만원 미만	148	31.2
	2000만원 이상	154	32.4
저축	전혀 없다	86	18.1
	약간-2000만원 미만	204	42.9
	2000만원 이상	185	38.9
평소의 부부관계	매우 좋다	59	12.6
	좋다	284	60.4
	그저 그렇다	116	24.8
	좋지 못하다	10	2.0
	매우 좋지 못하다	1	.2
경제적 위기경험	전혀 없었다	59	12.7
	1-2회 있었다	284	60.4
	아주 많았다	126	26.9
절약습관	많이 절약한다	171	36.1
	약간 절약한다	143	30.2
	보통이다	135	28.5
	절약하지 않는다	22	4.6
	전혀 절약하지 않는다	3	.6

* 불완전 응답자의 무응답 자료도 포함되었으므로 대상자 합계가 475명 미만인 경우도 있음.

2. 가장의 실직에 따른 가정생활 변화

가장의 실직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직가정과 비실직가정의 부부생활, 의생활, 식생활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부부관계의 적응도로 살펴본 부부관계는 가장이 실직한 가정의 경우 실직하지 않은 가정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부간의 응집도와 만족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부간의 응집도 차이가 가장 컸다. 가장의 실직이 부부간의 응집 면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부부간의 합치도 면에서도 실직가정이 비실직가정보다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가장의 실직에 따른 의생활 변화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복의 폐기는 가장이 실직한 가정과 실직하지 않은 가정 사이에 유의차가 없었다. 의복의 구입과 사용 그리고 의생활 전체에서 가장이 실직한 가정과 실직하지 않은 가정 사이에 유의차가 있었다. 의복의 구입과 사용 그리고 의생활 전체에 걸쳐서 가장이 실직한 가정의 경우 실직하지 않은 가정보다 비용 절감을 위하여 더 노력하고 있었다.

가장의 실직에 따른 식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식품의 폐기는 가장이 실직한 가정과 실직하지 않은 가정 사이에 유의차가 없었다. 식품의 구

〈표 2〉 가장의 실직에 따른 가정생활 변화

가정생활		실직가정	비실직가정	t 값
부 부 관계	응집도	7.81	9.29	3.44***
	합치도	24.85	26.32	1.69
	만족도	17.03	18.74	2.54*
	전 체	49.10	54.06	2.80**
의생활	구 입	18.13	17.11	1.98*
	사 용	17.94	17.11	2.14*
	폐 기	11.64	11.52	1.23
	전 체	45.89	44.72	2.01*
식생활	구 입	14.41	13.06	2.19*
	사 용	17.59	16.42	1.99*
	폐 기	10.91	10.26	.89
	전 체	42.58	40.22	1.98*

* P < .05, ** P < .01, *** P < .001

입과 사용 그리고 식생활 전체에서 가장이 실직한 가정과 실직하지 않은 가정 사이에 유의차가 있었다. 식품의 구입과 사용 그리고 식생활 전체에 있어서 가장이 실직한 가정의 경우 실직하지 않은 가정보다 비용 절감을 위하여 더 노력하고 있었다.

3. 경제적 압력과 가정생활

가장의 실직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적 압력과 가정생활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3> 경제적 압력과 가정생활의 상관관계

가정생활		실직가정	비실직가정	전체
부 부 관 계	응집도	-.26**	-.04	-.12*
	합치도	-.24*	-.02	-.12*
	만족도	-.14	-.12*	-.14*
	전 체	-.23*	-.06	-.12*
의생활	구 입	-.13	-.14	-.12*
	사 용	-.15	-.07	-.05
	폐 기	-.11	-.00	-.05
	전 체	-.14	-.05	-.07
식생활	구 입	-.18*	-.17*	-.16**
	사 용	-.21**	-.20**	-.17**
	폐 기	-.20*	-.16*	-.15**
	전 체	-.20*	-.18**	-.21**

* P < .05, ** P < .01, *** P < .001

경제적 압력과 부부관계는 부부간의 합치도 이외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가족만족도와 부정적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Voydanoff 등 1988).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부부간의 질과 관련시켜 연구한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부가 서로에게 지지행동 표현을 줄이고 적대행동을 늘이는 등

부부관계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밝힌 결과와도 매우 유사하다(Elder 등 1990). 그러나 가장이 실직하지 않은 가정에서 경제적 압력과 부부관계의 상관관계는 부부간의 만족도 영역에서만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나 가장이 실직한 가정에서는 전반적인 부부관계와 경제적 압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영역 즉, 부부간의 응집도와 경제적 압력, 부부간의 합치도와 경제적 압력, 그리고 부부간의 만족도와 경제적 압력은 부적인 상관도를 유의하게 나타냄으로써 실직가정에서 경제적 압력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의 실직여부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낸 상관도는 부부간의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실직한 가정의 관련 정도에 의한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정생활에서 주부가 느끼는 경제적 압력은 가장이 실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응집력이나 합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가장이 실직한 경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압력과 의생활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실직가정과 비실직가정의 경우 의복의 구입, 사용, 폐기, 그리고 의생활 전체에 걸쳐서 부적관계에 있었으나 유의한 관계는 없었다. 대상자가정 전체의 경우 의복의 사용, 폐기, 그리고 의생활 전체는 경제적 압력과 부적관계를 보였으나 유의한 관계는 없었고 의복의 구입 영역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각 가정에서는 경제적 압력을 느끼게 되면 맨 먼저 의복 구입을 자제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8)에서의 보고와 일치되는 결과이었다. 본 조사 연구가 실시된 시기가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초기였으므로 의복의 사용이나 폐기 영역에서 절약행동이 덜 나타났으리라 추측된다.

경제적 압력과 식생활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실직가정이나 비실직가정에서 식품의 구입, 사용, 폐기, 그리고 식생활 전체에 걸쳐서 유의한 부적관계에 있었다. IMF 관리 체제하에서 여러 가정에서는 가정의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실질적으로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식품의 구입, 사용, 그리고 폐기의 전영역에 걸쳐서 절약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8)에서 보고된 바와 일치된 결과이었다.

4. 가정의 자원과 가정생활

평소의 부부관계, 경제적 위기 경험, 가족의 절약습관, 빛, 저축액 등의 가정의 자원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자 가정을 실직가정과 비실직가정으로 나누어 각각 다단계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직가정에서 가정의 자원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표4>와 같다. 가정의 자원중 평소의 부부관계는 가정에서의 부부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38%이었다. 가정의 자원중 절약습관은 가정에서의 의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7%이었다. 가정의 자원중 저축은 식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표 4> 실직가정에서 가정의 자원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정 생활	가정 자원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값	설명력
부부관계	평소 부부관계 상수	7.20 42.00	.82	6.44*** 24.27***	.38
	절약습관 상수	- 2.68 49.22	- .26	- 2.14*** 26.72***	.07
식생활	저축 상수	3.20 41.62	.24	2.03*** 37.78***	.06

*** P < .001

그 설명력은 6%이었다.

비실직가정에서 가정의 자원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표5>와 같다. 평소의 부부관계는 가정에서의 부부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8%이었다. 절약습관은 의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7%이었고 저축과 절약습관은 식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6%이었다.

<표 5> 비실직가정에서 가정의 자원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정 생활	가정 자원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값	설명력
부부관계	평소 부부관계 상수	6.37 43.16	.42	6.72*** 34.51***	.18
	절약습관 상수	- 2.64 49.75	- .26	- 3.79*** 46.59***	.07
식생활	저축 상수	- 3.44 - 1.49	- .18 - .17	- 2.73*** - 2.54***	.06
	절약습관 상수	43.87		47.07***	

** P < .01, *** P < .001

실직가정과 비실직가정을 비교해 볼 때 평소 부부관계는 가정생활의 세 영역중 부부관계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해 주는 가정의 자원이었으며 특히 실직가정에서 그 영향력이 컸다. 절약습관은 의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저축은 식생활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자원이었다. 그러므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평소 생활습관이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 가정에서 느끼고 있는 경제적 압력과 가정의 실직이 가정의 부부관계, 의생활, 그리고 식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라북도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600가정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1998년 6월에 배부하여 47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t-test, 피어슨 상관분석, 다단계 중다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12월 이후 가장의 취업 상태 변화를 경험한 가정은 전체 대상자 가정에서 1/4 정도 있었으며 4/5 이상의 가정에서 경제적 압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빛이 있는 가정은 1/3 정도 있었으며 저축이 전혀 없는 가정은 1/5 정도 있었다. 대다수의 가정에서 평소 부부관계는 좋거나 보통이었으며 과거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가정이 많았다. 2/3 정도의 가정에서 절약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둘째, 실직가정의 경우 부부응집도, 부부만족도 등 부부관계가 실직하지 않은 가정보다 좋지 않았다. 또한 실직가정에서는 의복과 식품의 구입, 사용, 그리고 의생활과 식생활 전체에서 실직하지 않은 가정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셋째, 경제적 압력과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의생활, 그리고 식생활 등의 모든 영역의 관계는 실직가정이 실직하지 않은 가정보다 더 크며 특히 식생활영역이 제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넷째, 모든 가정에서 저축, 평소의 부부관계, 절약습관 등의 가정 자원은 가정생활의 부부관계, 의생활, 식생활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특히 평소 부부관계는 실직가정의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1997년 말 이후 가장의 실업이나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압력을 모든 가정에서 느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평소 부부관계, 절약습관 그리고 저축 등 평소의 생활태도나 습관은 가정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절약하고 저축하는 생활 습관을 키우고 평소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 노력하여야겠다.

본 연구는 전북 지역에 국한되었으며 각 가정에서 경제적 압력을 심각하게 느끼기 전인 1998년도 상반기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가정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여러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 이에 따르는 가족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족들은 힘을 모아 자원을 절약하고 가족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다.

둘째, 일반적으로 절약이란 개념은 물자를 구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만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한 사용하고 폐기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포함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셋째, 각 가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압력을 심하게 받게 되었을 때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민자(1995). 스커트 길이는 경제의 신호등인가? 멋을 아는 생활, 제일모직, 31.
2. 김기욱, 서병숙, 이연숙, 계선자, 박미석, 주인숙, 이미선, 한정화(1998). 경제난과 가정의 건전소비전략.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제3회 심포지엄, pp. 32-67.

3. 김년희, 안승철(1998). 도시가계의 주관적 경제불안과 경제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제51차 춘계학술대회:37.
 4. 김은미, 이선이(1998). 고실업시대의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 제51차 춘계학술대회:33.
 5. 삼성패션연구소(1998). IMF이후의 남성복 구매행동 동향. 조사보고서.
 6.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 교문사, 서울
 7. 통계청(1997). 보도자료 - 1997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 수지 동향.
 8. 통계청(1998). 보도자료 - 1997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 수지 동향.
 9. 통계청(1998). 보도자료 - 98년 3월 및 1/4분기중 산업활동 동향.
 10. 최현자(1998).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와 개선방향. 1998년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춘계학술대회:12-21.
 11.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IMF체제 전후의 소비자 의식 및 행태 비교.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12. 현기순(1998). 식생활관리. pp. 114-119, 교문사, 서울
 13. 황덕순(1994).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Atkinson, T., R. Liem, J.H. Liem(1986). The social costs of unemployment: Implications for social support. In Voydanoff(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099-1115.
 15. Greenwood, K.M., M.F. Murphy(1978). Fashion Innovation and Marketing. Macmillan Pub. Co. Inc. :60-61.
 16. Larson, J.H.(1984). The effect of husband's unemployment on marital and family relations in blue-colla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503-511
 17. Liker, J.K., G.H. Elder(1983). Economic hardship and marital relations in the 1930s. In Voydanoff(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099-1115.
 18. Sawhill, L., G. Peabody., C. Jones., S. Caldwell (1975). Income transfers and family structure. In Larson, The effects of husband's unemployment on marital and family relations in blue-colla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503-511.
 19. Spanier, G.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5-28.
 20. Voydanoff, P., B.W. Donnelly., M.A. Fine (1988). Economic distress, social integr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9(4):545-563.
 21.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099-1115.
 22. Wilhelm, M.S., C.A. Ridley(1988). Stress and unemployment in rural nonfarm couples: A study of hardships and coping resources. *Family Relations* 37(1):50-54.
- <신문기사>
 중앙일보 1998. 5. 21
 조선일보 1998. 6. 12.